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8.9)

1. 수출규제 대상품목 관련 일본 기업의 동향¹⁾

□ [일본 기업 동향]

- 일본 언론은 개별허가 대상 품목의 수출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일부 품목의 경우 대중국, 대만 수출의 경우보다 허가 요건이 엄격하며, 화이트국가 제외조치가 28일 발효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인지가 불투명하여 관련 기업들이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함.²⁾
- o 일본 기업들이 중국, 대만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를 수출할 경우에는 그룹 A(화이트 국가) 이외의 국가여도 사용할 수 있는 포괄허가제도의 혜택을 받지만,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는 3개 소재 모두 개별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임.³⁾
- 일렉트로 모리타화학은 연내에 중국에서 고순도 불화수소의 생산을 시작하게 됨. 삼성전자의 중국공장 및 중국의 반도체 회사에 납품하고 요청이 있다면 한국에도 출하할 예정임.
- o 모리타 화학은 7월 2일 수출허가 신청을 하였지만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임. 모리타 사장은 당사의 매출액 중 한국에 수출하는 고순도 불화수소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순도 불화수소의 한국 수입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점유율이 약 60%인데 이번 수출규제 건으로 점유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함.⁴⁾
- 또한 레지스트 세계시장에서 20~3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TOK는 EUV용 레지스트를 한국의 공장에서 생산, 한국 기업에 납품할 예정이며 현재 한국에서의 레지스트 생산량 증대를 검토하고 있음.

1) 「韓国に半導体材料、一部認める、安全輸出見通せず、中台向けより厳しいものも。」 『日本経済新聞』(2019. 8. 9).
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심사를 위해서는 재질, 성능을 표시한 자료 등 7가지 서류를 제출하나, 고순도 불화수소는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아 거래처 한국기업의 조달실적, 최종제품의 생산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까지 제출해야 함.
3) 8월 2일 일본 정부는 수출관리제도를 수정, 기존의 수출대상 국가를 4단계로 분류하여 그룹 A(화이트 국가), 그룹 B(한국 포함, 4개 국제 레짐에 가입한 국가이나 비화이트국), 그룹 C(중국, 대만 등), 그룹 D(북한 등)로 구분하였음.
4) 「半導体材料の対韓輸出厳格化、「シェア低下しかねない」、森田化学社長が危機感」 『日本経済新聞』(2019. 8. 9).

□ [일본 언론 전망]

- 고순도 불화수소 및 레지스트를 일본 국외에서 생산,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 이번 수출규제의 대상이 아님. 단, 생산설비 및 원재료를 일본에서 한국 및 중국에 수출할 경우 수출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언론 매체는 전망함(日本經濟新聞).
- o 7.1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뿐만 아니라, 이들 소재들과 관련된 제조기술의 이전(생산설비에 동반된 것도 포함)도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임.⁵⁾

2.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검사 강화

□ [한·일 정부 동향]

- 8월 8일 환경부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⁶⁾
- o 환경부는 그 동안 수입하는 업자가 석탄재에 포함된 방사선의 간이측정 결과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였지만,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하여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화되는 조치의 세부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아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함.⁷⁾

3.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한 영향

□ [관광산업]

5) 經濟産業省, 「大韓民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について」, (검색일: 2019. 8. 9).

6)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한다」 (2019. 8. 8).

7) 「韓国の石炭灰の検査強化計画 官房長官「情報収集中」」 『NHK NEWS WEB』 (2019. 8. 9).

- NHK는 9일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방일 한국인수 감소 등 일본의 관광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도함.⁸⁾
- o 2018년 방일 한국인수는 753만명으로 중국 다음으로 많으며, 방일 외국인 여행객 전체의 약 25%를 차지함.
- o 그러나 한일관계 악화 등을 배경으로 여행객의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있음. 8~9월 한국인 여행객의 예약건수가 전년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의 수도 전년대비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o 또한 최근 몇 년간 큐슈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었는데, 한일 관계의 악화로 한국인의 방문이 감소하고 있음. 후쿠오카의 한 유명 백화점(博多大丸)의 경우 금년 7월에는 한국 관광객으로 인한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약 25% 감소하였음.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8.10~11)

1. 삼성전자의 포토레지스트 벨기에 수입 관련

□ [동향]

- 일본 언론은 삼성전자가 벨기에의 한 회사로부터 포토레지스트를 조달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함(日本經濟新聞).⁹⁾
- o 회사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2016년에 일본의 화학회사인 JSR과 벨기에의 연구센터 IMEC가 설립한 합병회사일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고 있음.
- 닛케이는 삼성전자가 6~10개월분의 화학재료를 구입, 최첨단의 반도체칩을 제조하는 공정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함.

8) 「日韓關係悪化と米中貿易摩擦 経済にさまざまな影響が」 『NHK NEWS WEB』(2019. 8. 9).

9) 「サムスン、ベルギーで調達、半導体材料、代替ルートに。」 『日本經濟新聞』(2019. 8. 11).